증권 다이제스트

신한금융투자
해외 관련주 정보 서비스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상장 주식 정보 확인시 관련 해외주식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동종업종 해외주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종업종 해외주식 서비스'는 신한i HTS에서 국내 주식을 검색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상장된 관련 업종의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외 주식을 국내주식과 연동해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동종 업종내 종목의 시세 동향, 리서치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문호 기자

대신증권
철광석 투자 ETN 상장

대신증권은 국내투자자들도 쉽게 철광석(Iron Ore)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대신 철광석 선물 ETN(H)와 '대신 인버스 철광석 선물 ETN(H)'을 글로벌 최초로 신규 상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 경기회복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 기대감을 반영해 만든 상품으로, 산업용 금속의 대표 광물인 철광석에 투자하는 ETN(Exchange Traded Notes, 상장지수증권)이다.

이 상품은 환헤지형 상품으로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브라질국채 시황 설명회

KB증권은 2월에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브라질국채 시황 설명회'를 총 두 차례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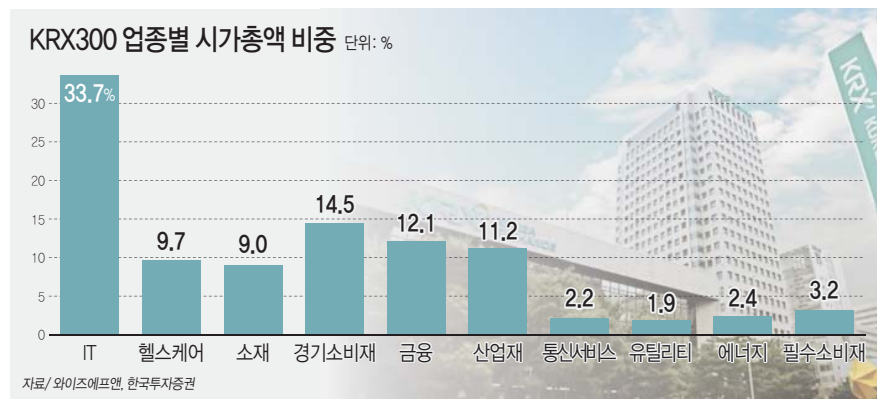
첫 번째 설명회는 2월 7일 오후 4시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두 번째는 2월 21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및 고금리 쿠폰,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높아진 브라질국채에 대한 고객 관심에 부응하고자 KB증권 애널리스트가 직접 강사로 나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생생히 전달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브라질국채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KRX300 새 지수 활용… 신상품 쏟아진다

코스피 237개·코스닥 68개 종목
수급 영향력·전술적 유용력 높아
국가 차원 지수 연기금 참여 기대



한국거래소가 KRX300 지수를 발표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은 지수 관련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KRX 300 지수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신 통합지수인 'KRX 300'을 다음 달 5일 출시한다. 정기변경은 연 2회(6월, 12월)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새로운 지수다.

해당 지수는 시장규모(최근 6개월 일평균 시가총액)와 유동성(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대금)을 기반으로 개별 산업군내 누적시총 80% 이내 또는 섹터 시총순위 30%이내 및 산업군 내 거래대금 순위 상위 80% 이내 종목을 우선 편입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자금의 일부인 약 5조원 규모의 자금이 KRX300 지수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입 호재로 종목주가 상승

한국거래소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KRX300 구성 종목을 보면 코스피 237개 종목과 코스닥 68개 종목 등 총 305개 종목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정기변경 이후 지수 내 5개 구성종목의 분할 재상장 결과를 반영해 5종목을 추가 선정했다. 동아타이어가 동아타이어, 디티알오토모티브로 분할되고, 쿠쿠전자가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등으로 분할된 영향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KRX300 지수의 수급적 영향력과 전술적 유용성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예상 밖으로 편입된 종목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날 디티알오토모티브는 전일 대비 0.75% 상승했고, 쿠쿠홀딩스(2.29%), 메리츠금융지주(0.30%), 쌍용차(0.86%) 등이 상승했다.

KRX 300지수 구성종목이 발표되면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관련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5개 자산운용사(삼성·미래에셋·KB·키움·한화) 모두 이르면 3월 말에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계획을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KRX300 지수 전망은 긍정적이다"면서 "우선 KRX 300 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상품을 내놓은 다음 상황을 보고 스마트베타 등 여러 ETF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관련 지수를 활용한 상품 구성에 긍정적이다. 다만 유동성은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KRX300 지수 활용한 상품 잇따를 듯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S 운용 활성화를 위해선 헷지수단이 분명히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 KRX300에 대한 장내옵션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좀 더 시장이 정착되고 안정화된 후 상품화를 고려해볼 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동성이 확보된다면 관련 상품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몇몇 증권사에서 KRX 300 지수를 활용한 ETN을 상품화하겠다는 의사를 거래소에 피력했는데 거래소에서는 ETN 상품관련규정에 따라 KRX300이 대표지수이므로 상품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분간 ETN 상품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KRX300 지수는 거래소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지수이니 만큼 연기금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며 "만약 국민연금이 KRX300 지수 편입을 약속한다면 자산운용사 등 관련 투자자들 역시 자연적으로 KRX300 지수를 기준지수로 편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50만원 주식을 5만원에… 깜짝 액면분할에 주가 '화답'

SAMSUNG 삼성전자

5월 16일 신주권 상장 계획
투자자 저변 넓어져 '긍정적'

삼성전자 주가가 액면분할 결정으로 개별 종목 하루 거래대금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8.71% 오른 270만7000원까지 올랐다가 249만5000원으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종로구 한 금융공학연구소.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50대 1의 액면분할을 결정하면서 주가도 하루 종일 요동쳤다. 장 중 한때 8.71%나 급등했지만 결국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쳤다.

1월 31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1주 당 5000원을 100원(50대1)으로 액면분할한다는 공시에 오전부터 들썩였다. 현재 250만원을 넘어선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또 유통주식은 보통주 1억2838만6494주에서 64억1932만4700주로 늘어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주식 분할 결정은 오는 3월 23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한다. 주식분할이 결정되면 삼성전자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5월 16일 신주권을 상장시킬 계획이다.

액면분할은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이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발행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무상증자와 달리 액면 분할은 주당 기업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 지분율 등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석한다. 삼성전자가 1주당 100만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액면 분할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 결정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면서 "이번 결정은 그간 자본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회적 책임 측면이 강하다. 투자자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결정에 주가는 화답했다. 액면분할 소식이 전해진 직후 240만원대에서 맴돌았던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270만7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노근창 현대차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 상승은 삼성의 주주환원 정책 연속성을 확인한데 따른 기대감으로 보인다"면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 유동성이 제고됐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액면분할에 따른 주가 호재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실제 2000년 이후 667건의 액면분할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공시일 당일 3.78% 상승하지만 평균 수익률은 60일 전후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엄지 기자

GS건설, '자이' 브랜드 아파트 3만가구 분양

자이

지난해 민간 분양 최대 물량인 2만4000여 가구를 공급한 GS건설이 올해 '자이(Xi)' 브랜드 아파트 약 3만 가구를 분양한다.

GS건설은 작년 21개 단지 2만4345가구(일반 1만8992가구)를 공급했다. 올해는 25개 단지, 3만164가구(일반 1만4125가구)로 늘렸다.

GS건설의 분양 계획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9곳, 수도권 12곳, 지방 4곳이다. 서울·수도권 단지는 21곳, 2만6860가구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는 14개 단지, 2만1114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약 70%에 달한다.

분양 가구수인 3만164가구 가운데 1만3691가구가 조합원 분양이다. 일반 분양은 1만4125 가구로 작년 대비 총 공급물량은 증가했으나 일반분양 물량은 감소했다.

현재 GS건설은 올 해 첫 마수걸이 분양으로 '춘천파크자이' 965가구를 분양중이다.

오는 3월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의 '개포주공8단지'와 서울 도심 인기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63번지 일대 신길뉴타운 8구역 '신길파크자이(641가구)', 서울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대에 공급되는 염리3구역(1694가구)에서 자이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같은 달 수도권의 수원고등지구와 대구 복현동에서 복현자이(594가구)도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

오는 4월에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주공 6단지 1824가구, 11월 개포주공 4단지를 분양한다.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개포주공 4단지는 334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서울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761가구)도 9월에 분양하며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446가구)도 10월에 분양한다.

9월에 의정부 송산1구역 (2562가구)을 분양하고, 10월에 성남 고등지구(534가구)를 분양하며, 11월에 안양 임곡3지구(1582가구), 12월에 과천주공6단지(2145가구) 등을 잇따라 분양한다.

우무현 GS건설 건축주택부문 대표는 "GS건설은 국내 대표 아파트인 자이의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능력을 총 동원해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